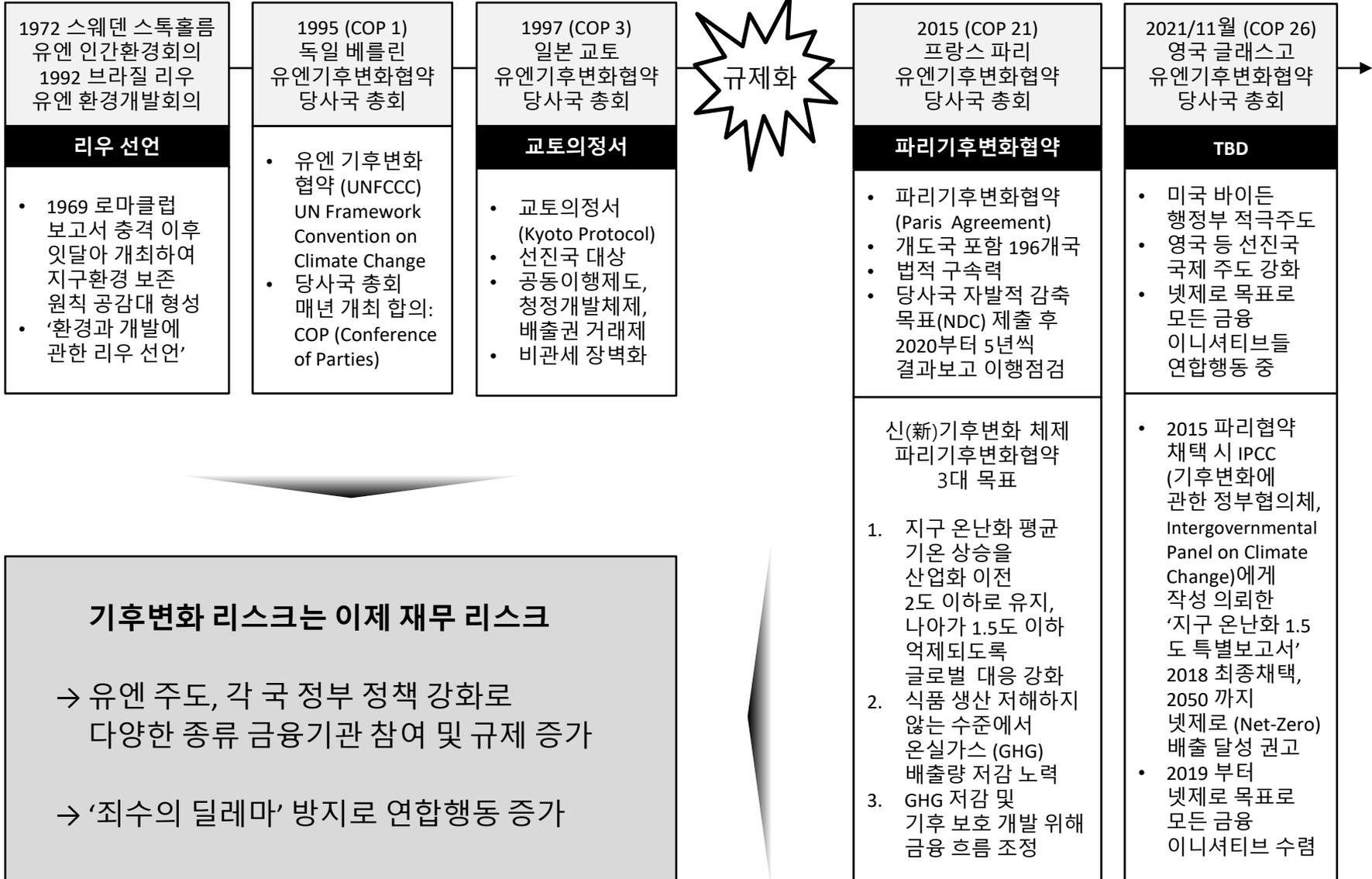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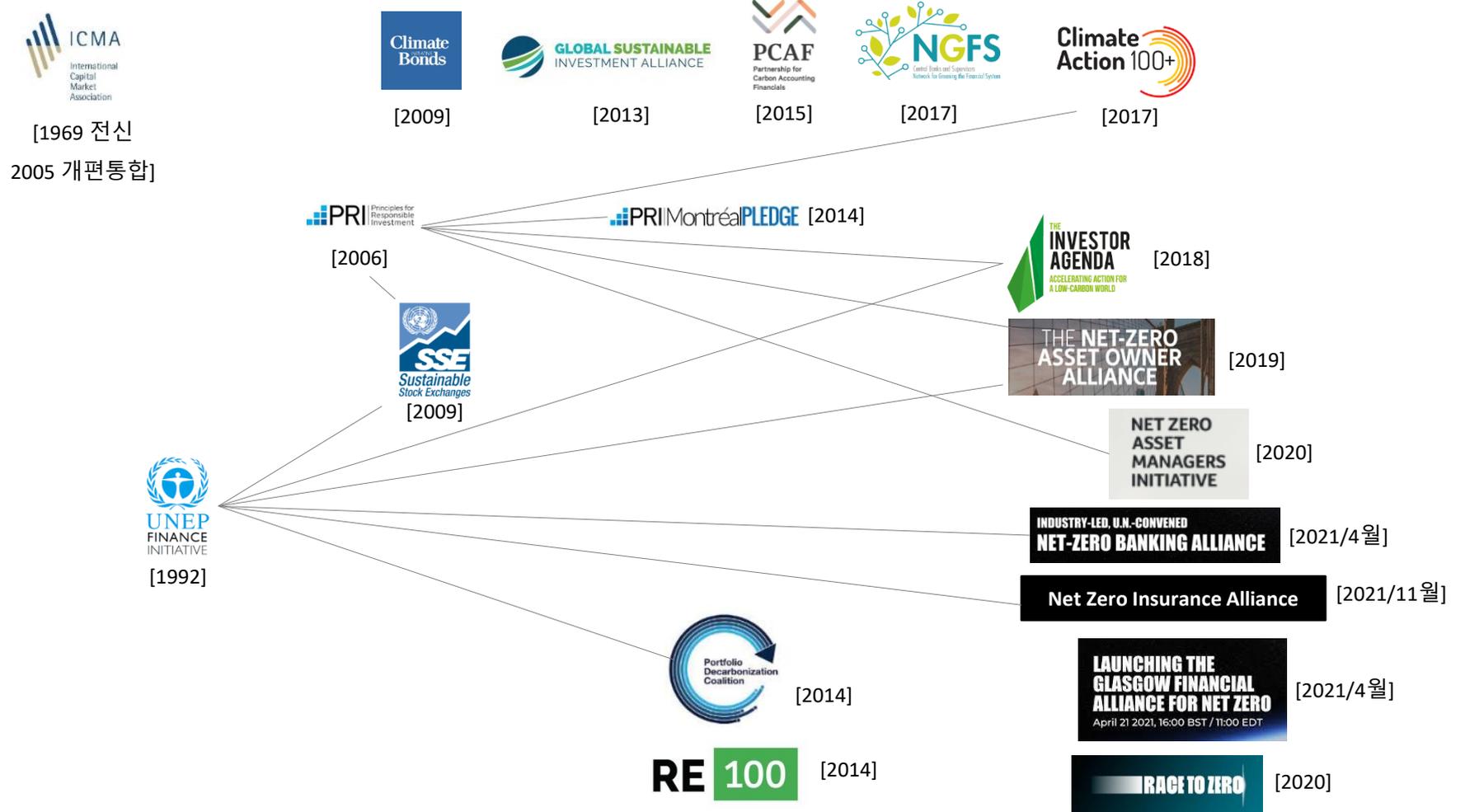
금융 이니셔티브 현황

1. 목적
2. 유형
3. 규범
4. 전망
5. 시사점 및 대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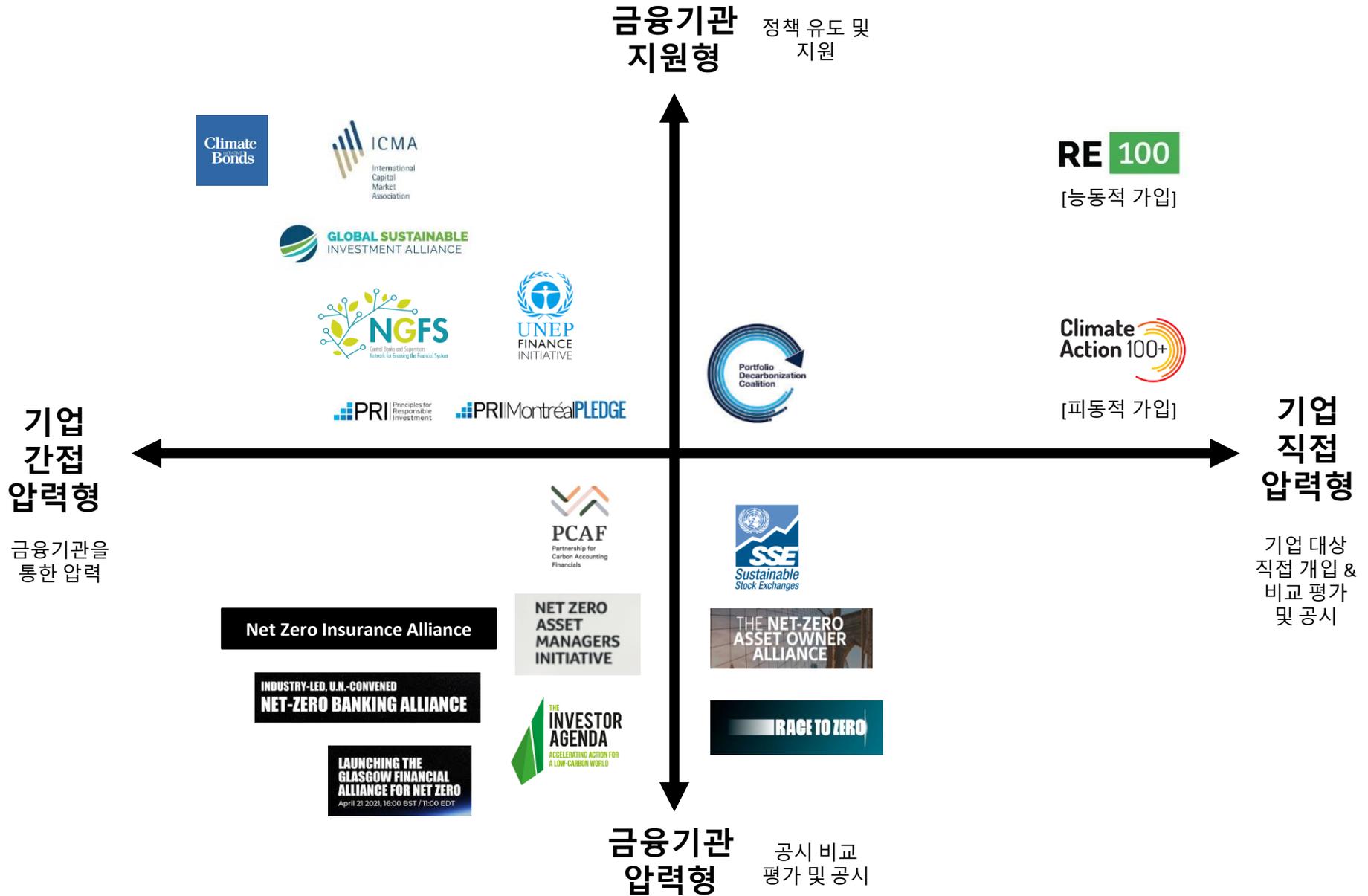
1. 목적

설립시기 및 관계도



복합 참여형에서 분야별 세부형으로 분화 후 COP 26 위해 재 연합

No.	명칭	설립년도	거래소	중앙은행	은행	보험	연기금	자산운용사	기업
1	국제자본시장협회	1969/2005	√	√	√	√	√	√	√
2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1992			√	√	√	√	
3	(유엔)책임투자원칙	2006			√	√	√	√	√
4	국제기후채권기구	2009	√		√	√		√	√
5	지속가능거래소 이니셔티브	2009	√						
6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	2013			√	√	√	√	
7	몬트리올 탄소 서약서	2014			√	√	√	√	
8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연합	2014			√	√	√	√	
9	탄소회계금융협의체	2015			√	√	√	√	
10	녹색금융시스템 네트워크	2017		√					
11	기후행동 +100	2017			√	√	√	√	√(피동적 가입)
12	투자자 어젠더	2018			√	√	√	√	
13	넷제로 자산오너 연합	2019			√	√	√		
14	넷제로 자산운용사 운동	2020						√	
15	넷제로 은행 연합	2021			√				
16	넷제로 보험 연합	2021				√			
17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	2021			√	√	√	√	
18	레이스 투 제로	2020			√	√	√	√	√
19	RE100	2014							√(능동적 가입)



대부분 연성법(soft law)이지만 영향 받아 각 국 경성법(hard law) 규제 강화 중

No.	명칭	확산 규범·정책	확산 방식
1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	ESG 투자방식	7가지 방식별 투자규모 정보수집 후 연간 통계 발표
2	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사회적·지속가능성 채권원칙	원칙별 발행기준 제시를 통해 외부 검토와 보고 독려
3	국제기후채권기구	CBI 녹색채권표준	인증, 검증, DB 관리, 교육, 자문, 시상제도 운영
4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녹색금융시스템 네트워크	지구온난화를 막는 기후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도입 가능한 정책수단	중앙은행 대상 녹색금융 거시경제 정책 권고 보고서 발간을 통한 권고안과 가이드 전파
5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책임투자·지속가능보험·책임은행원칙	별도 이니셔티브 설립(PRI)과 각 원칙 이행 공시 촉진
6	(유엔)책임투자원칙	책임투자원칙	원칙 이행 공시 촉진 및 우수기관 시상제도 운영
7	지속가능거래소 이니셔티브	ESG 가이드런스 및 ESG 강화 정책	각 거래소별 정책 비교 가능 DB 공개운영을 통한 공시
8	몬트리올 탄소 서약서	투자포트폴리오 탄소발자국 측정 단계	서명기관에게 탄소발자국 측정 서비스 할인 제공
9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연합	몬트리올 탄소서약과 탄소발자국 측정	서약 후 실행활동에 대한 공시 장려
10	탄소회계금융협의체	금융산업 글로벌 GHG 회계/보고 기준	6대 세부 금융 분야 탄소회계 방법론 전파
11	기후행동 +100	Net-Zero Company Benchmark	투자자들이 개입 선호 기업 선택 후 비교평가 및 공시
12	투자자 어젠더	투자자 어젠더	공동성명서 모아 세계·각 국 정부 대상 공개서한 발송
13	넷제로 자산오너 연합	넷제로 투자 중간목표 수립방식 가이드런스	최대 20개까지 기업 연계 목표와 KPI 이행 성과 공시
14	넷제로 자산운용사 운동	넷제로 자산운용사 약속	탄소중립 운용자산 100% 도달까지 매 5년씩 목표 검토
15	넷제로 은행 연합	은행의 기후목표 수립 UNEP FI 가이드라인	대출·투자 포트폴리오 GHG 연간 측정 후 보고 공시
16	넷제로 보험 연합	UNEP FI의 지속가능보험 원칙	지속가능보험원칙 실행 성과 공시
17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	RACE TO ZERO 기준	과학기반 단기·장기 계획 이행 의무 및 공시
18	레이스 투 제로	RACE TO ZERO 기준	2030년까지 50% 감소 목표수립 후 정기 보고 및 공시
19	RE100	RE100 글로벌 정책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및 정부정책 변화

한시적 이니셔티브 제외, 금융 각 분야 전 세계 영향력과 지속 성장 중

No.	명칭	회원 현황 및 영향력	확산 추세
1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	7개 선진국 지속가능투자연합회지만 글로벌 통계로 독보적 권위	↗ 국가·지역 확장 중
2	국제자본시장협회	대표적 ESG 채권 발행 글로벌 표준으로 반드시 부합 필요	↗ ESG 채권과 함께 확장 중
3	국제기후채권기구	녹색채권표준과 인증을 위한 유일한 국제기관	↗ 녹색 채권과 함께 확장 중
4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녹색금융시스템 네트워크	89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회원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포함)	↗ 통화·담보·대출 지원책 이건이 존재하지만 확장 중
5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378개 금융기관 및 100여 개 정책지원 기관	↗ 세계 지속가능금융 선도
6	(유엔)책임투자원칙	세계 50% 이상 투자기관 참여 3,934개 서명기관	↗ 가장 큰 기관투자자 연합체
7	지속가능거래소 이니셔티브	107개 거래소, 16개국 금융위, 53,403개 기업 시총 88조 달러	↗ 지속적 확장 중
8	몬트리올 탄소 서약서	120개 투자기관 총 자산규모 10조 달러	↘ 2015년 이후 활동 감소
9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연합	34개 자산소유 및 운용기관 총 자산규모 8천억 달러	↘ 2017년 이후 활동 감소
10	탄소회계금융협의체	116개 금융기관 총 자산규모 27조 달러	↗ 250개 목표로 확장 중
11	기후행동 +100	570개 투자기관 총 자산규모 54조 달러 + 피동 선택 167개 기업	↗ 런칭 이후 130% 가입성장률
12	투자자 어젠더	631개 투자기관 총 자산규모 37조 달러	↗ 설립 후 실질적 성과와 성장
13	넷제로 자산오너 연합	35개 투자기관 총 자산규모 5.6조 달러	↗ 고속성장 위해 노력 중
14	넷제로 자산운용사 운동	73개 자산운용사 총 자산규모 32조 달러	↗ COP26/RACE TO ZERO 참여
15	넷제로 은행 연합	43개 은행 총 자산규모 28.5조 달러	↗ COP26/RACE TO ZERO 참여
16	넷제로 보험 연합	7개 보험사 기 가입 회원기관 외 UNEP FI 보험사 가입 예정	↗ COP26/RACE TO ZERO 참여
17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	162개 금융기관 총 자산규모 70조 달러	↗ COP26/RACE TO ZERO 참여
18	레이스 투 제로	121개국 23개 지역 509개 도시 2,163개 기업, 126개 투자기관 등	↗ COP26 참여 준비 성장 중
19	RE100	309개 글로벌 기업 회원	↗ 기업 주도 지속적 확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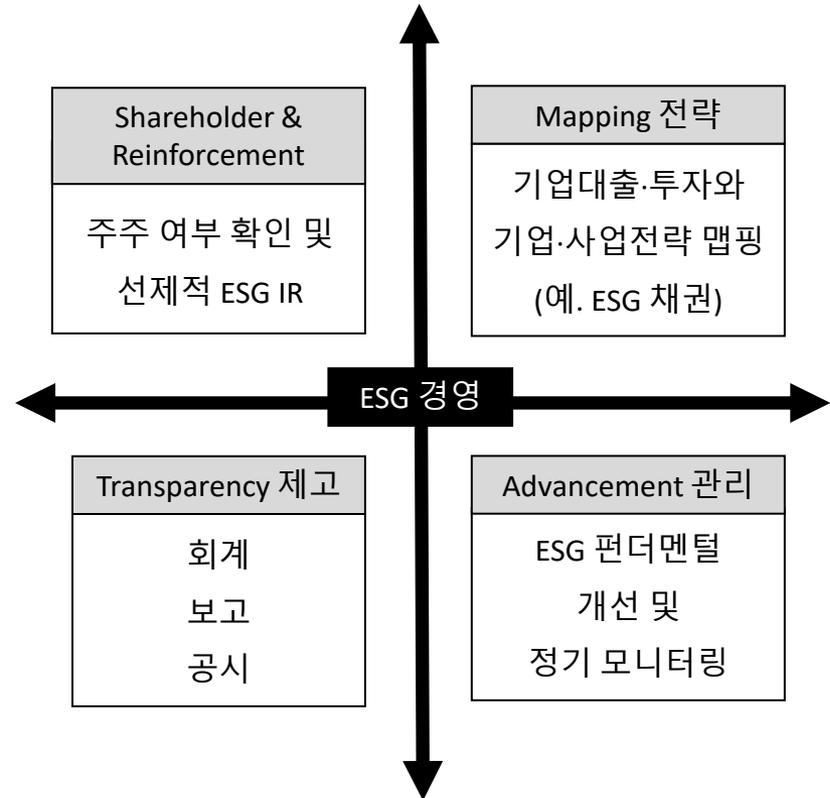
No.	명칭	한국 파트너 및 회원 활동
1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한 공식 회원
2	국제자본시장협회	시티은행 한국지점이 유일한 한국 회원, ESG 채권원칙 국제옵서버로 UN SDGs 협회가 지정
3	국제기후채권기구	자문위원회에 글로벌 기후금융 선구자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 & CBI 고문
4	녹색금융시스템 네트워크	한국은행 가입, 금융위와 금감원 가입 준비 중
5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회원: 기업은행, 한국자산신탁, 신한금융지주회사,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DGB 금융그룹, DB 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생명보험 파트너: 금융감독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MOU 협약기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유엔)책임투자원칙	국민연금,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지속가능발전소, 안다자산운용, ESG모네타, 하이자산운용, VI 자산운용, 프렉시스 캐피탈 파트너스, 뮤렉스 파트너, 소시어스, Well to Sea 투자
7	지속가능거래소 이니셔티브	한국거래소(KRX)
8	몬트리올 탄소 서약서	N.A.
9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연합	N.A.
10	탄소회계금융협의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글로벌 사무국 컨설팅사 가이드하우스 서울 소재)
11	기후행동 +100	피동적 평가기업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한전
12	투자자 어젠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원 파트너, 2020년 5월 탄소중립 촉구 문재인 대통령 공개서한 발송
13	넷제로 자산오너 연합	국민연금 가입 압력이 가해질 전망
14	넷제로 자산운용사 운동	2020년 한전 주주 영국 LGIM사가 한전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에 제동
15	넷제로 은행 연합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16	넷제로 보험 연합	삼성화재, 신한생명보험, DB 손해보험, UNEP FI 의 지속가능보험 원칙 서명기관 참여 가능성
17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	UNEP FI, PRI, 넷제로 4가지 금융연합행동 그룹들의 한국 회원기관 참여 예상
18	레이스 투 제로	95개 기업·기관, 지자체 227개 탄소중립 이행 중 (71% 기업, 14% 투자자, 8% 지자체, 5% 대학 및 기관)
19	RE100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원 파트너, SK 8개 계열사 및 수자원공사 참여, K-RE100 도입 준비 중

대응방법은

- S**hareholder 여부 확인과 선제적 대응
- M**apping 기업 대출·투자와 사업 전략
- A**dvancement ESG 펀더멘털 개선
- R**einforcement ESG IR 강화
- T**ransparency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대응방법은 주주 여부 확인과 선제적 대응, 기업 대출·투자와 사업 전략 맵핑, ESG 펀더멘털 개선과 ESG IR 강화,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이다.

ESG 경영 강화



행동주의 투자자(Activist Investor)*

- 구조적, 유기적 연계
시스템적 연합행동
- 정부**, 각종 금융기관,
환경경영 저 성과·미 공시 기업 대상
직·간접 압력 증대
- 대륙·국가·업종별 세분화 활동 강화
- 석유가스, 광업금속, 유틸리티,
운송, 소비재 등 산업 포커스 기업별
GHS 배출 저감 노력 평가 공개

선제적 ESG IR 대응 강화

- SK 해외 및 국내 주주 여부 확인과
지속적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 투자 감소·철회
 - Naming and Shaming
 - 기업 분기 실적발표나 주주총회 질문
 - 기업 대상 공개서한과 성명서 발표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실패
이사진 대상 해임 건의/투표
 - 해당기업 발간보고서나 결의 반대
 - 해당기업 연합투자자 공동성명서 발표
 - 기후변화 리스트 관련 주주결의 지원 ***

* NGO와 가치 지향 및 행동 양식이 유사하며 직간접 개입 공동 연대

** 2020년 5월 탄소중립 선포 촉구 문재인 대통령 공개서한 후 12월 한국 2050 탄소중립비전과 넷제로 실현 선포 (The Investor Agenda)

*** 2021년 주주총회 시기 쉐브론, 엑손모빌, GE, GM, 델타항공, UA 항공 대상 (Climate Action +100)

탈탄소화 직·간접 압력 강화

- 금융 이니셔티브 빅텐트화 역방향으로 책임성 및 실행성 강화 움직임
- 그린워싱 방지 금융 법제화 강화
- 2021년 11월 COP26 전후 압력 가속화
- 글로벌·국가별·산업별 규제 강화
- 미국 복귀, 영국 및 선진국 주도 강화
- 한국 NGFS 가입 확대로 금융권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변화가능성

ESG 펀더멘털 개선 및 정기 모니터링

- **SK 멤버사 간 ESG 경영 격차* 감소 필요**
 - 계열사 간 평가 및 벤치마킹
 - 유사 업종·사업(B2B, B2C, B2G) 벤치마킹
 - Peer Learning 구조 확립
 - 해외 선진기업 벤치마킹
- EU의 ESG 법안 강화 패키지** 일환인 기업 글로벌 공급망의 환경·인권·노동 실사(Due Diligence) 의무화 법안 가속화 대비, 협력회사 ESG 정보 추적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도입 준비 필요

* Climate Action +100 경우 GHG 데이터 상관없이 기후변화 재무 리스크 관련 기업도 개입 대상으로 선택

**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 환경분류체계 규정 EU 텍소노미, 공급망 실사 의무화 (환경·인권·노동 별도 조사 필요)

회계

- 금융산업 글로벌 GHG 회계 · 보고 기준 확산 중
- Scope 3 (밸류체인) GHG 회계기준 확산
- 한국정부 탄소세 도입 추진 중

- PCAF 회계방법론과 SV 회계연구회 **교차분석체크 필요**
- SK 멤버사 Scope 3 까지 **GHG/탄소회계 고도화 필요**

보고

- 미·영·유럽·일본·호주 투자자 2019년 12월 GSIA 설문조사
 - 대부분 기업 환경공시 불만족
 - 1/2 이상 TCFD 호의적
 - 1/3 TCFD 공시 투자분석 활용
 - 1/4 단기 내 TCFD 반영 예정

- SK 멤버사 GRI, SASB 외 **TCFD 기반 공시 반영 보고 고려**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공시 고려

공시

- 현재 전 세계 53% (56개 거래소 + 한국거래소) 명문화 ESG 가이드런스 제공 중
- 현재 전 세계 23%(25개 거래소) 상장기업 대상 ESG 공시 강제화 규제 실행 중

- 2021년 1월 금융위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1. 단계(~25년) 자율공시 활성화
 2. 단계(25~30년)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공시 의무화
 3. 단계(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 공시 의무화

* 현재 한국 내에서 가속화 논의 중

기업대출·투자과 기업·사업전략 맵핑 (예. ESG 채권)

해외 동향

-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 규모 100조 달러 추산
- 2021년 4월까지 총 누적 녹색인증채권* 약 1.2조 달러
- 2021년 4월 현재 4개월 간 발행된 CBI 기준 총족 녹색채권 약 105십억 달러 (CBI 인증 9.7십억 달러, CBI 정의 총족 94.8십억 달러, 불총족 2.5십억 달러)
- 2020년 녹색채권 총 발행 규모 269십억 달러
- **그린워싱 방지 위해 각국 ESG 금융 규제 강화** (예. SFDR 및 EU 텍소노미 등)

국내 동향

- 2020년 금융위·환경위 녹색금융 추진 TF 출범 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표
- **2021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 분석 발표 예정**
- **2021년 거래소 ESG 채권 세그먼트와 연계 위해 발행 전 외부검토 의무화 및 발행 후 외부검토 권고 예정**
- 녹색채권 발행인증 평가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나이스인증평가, 한국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ICMA 국제옵서버인 UN SDGs 협회 사후검증 예정

기업 동향

- 2020년 CBI 녹색채권 어워드 수상기업 구글 알파벳의 사회·환경프로젝트 채권 (역대 최대 5십8억달러 규모 지속가능채권 발행, 구글 데이터 활용한 탈탄소화 에너지, 수자원, 원재료, 교통, 스마트빌딩 등 투자)
- 최근 2년간 ESG채권 발행: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렌터카, SK건설, LG화학,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포스코, 롯데물산, 한화솔루션,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50곳 이상)

* ICMA와 CBI는 세계 양대 녹색채권 인증기준

No.	명칭		년도	확산 규범.정책
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	2013	ESG 투자방식
2	Int'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	국제자본시장협회	2005	녹색.사회적.지속가능성 채권원칙
3	Climate Bonds Initiative (CBI)	국제기후채권기구	2009	CBI 녹색채권표준
4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녹색금융시스템 네트워크	2017	지구온난화를 막는 기후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도입 가능한 정책수단
5	UNEP Finance Initiative (UNEP FI)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1992	책임투자.지속가능보험.책임은행원칙
6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유엔)책임투자원칙	2006	책임투자원칙
7	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SSE)	지속가능거래소 이니셔티브	2009	ESG 가이드선스 및 ESG 강화 정책
8	Montreal Carbon Pledge (Montreal Pledge)	몬트리올 탄소 서약서	2014	투자포트폴리오 탄소발자국 측정 단계
9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PDC)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연합	2014	몬트리올 탄소서약과 탄소발자국 측정
10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	탄소회계금융협의체	2015	금융산업 글로벌 GHG 회계/보고 기준
11	Climate Action +100 (CA +100)	기후행동 +100	2017	Net-Zero Company Benchmark
12	The Investor Agenda	투자자 어젠더	2018	투자자 어젠더
13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 (NAOA)	넷제로 자산오너 연합	2019	넷제로 투자 중간목표 수립방식 가이드선스
14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NAMI)	넷제로 자산운용사 운동	2020	넷제로 자산운용사 약속
15	Net Zero Banking Alliance (NZBA)	넷제로 은행 연합	2021	은행의 기후목표 수립 UNEP FI 가이드라인
16	Net Zero Insurance Alliance (NZIA)	넷제로 보험 연합	2021	UNEP FI의 지속가능보험 원칙
17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the Net Zero (GFANZ)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	2021	RACE TO ZERO 기준
18	RACE TO ZERO	레이스 투 제로	2020	RACE TO ZERO 기준
19	RE100	재생에너지 100프로	2014	RE100 글로벌 정책 운동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



[2013 / www.gsi-alliance.org]

- 개요: 선진국 지속가능투자연합회 글로벌 협의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투자기관 지원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벨기에, 시드니, 런던, 워싱턴, 동경, 위트레흐트

분류	내용
설립 주도	유럽,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7개 지역 지속가능투자연합회 기관 (Eurosif, RIAA, RIA Canada, UKSIF, USSIF, JSIF, VBDO)
설립 목적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지속가능투자 방식이 확산되도록 글로벌 차원 지원 및 역량 강화
주요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지역 지속가능투자연합회 ▪ 각 지역 회원은 투자관리자문기관, 뮤추얼펀드 회사, 조사기관, 재무 기획 전문가, 브로커 딜러, 은행, 신용조합, 지역사회개발기관, 비영리기관, 자산오너 기관 등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륙별·국가별 협력, 조언, 지원, 정보 교류 및 신규 지역 지속가능투자연합회 설립 지원 ▪ 7개 지역 지속가능투자 방식·유형·동향·통계 교류 및 종합 분석 정기적 발표 (2012, 2014, 2016, 2018) ▪ 2019 5개국 투자전문가 대상 TCFD 포함 기후변화 리스크 재무공시 투자 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대부분 상장기업 환경공시 불만족, 1/2 이상 TCFD 호의적, 1/3 투자분석 활용, 1/4 단기 내 반영 고려 중)
규범 확산	7가지 'ESG 투자 방식' 정의 및 주도 (1. 기업 개입 및 주주행동 2. 포지티브 스크리닝 3. 네거티브 스크리닝 4. 규범 기반 스크리닝 5. ESG 통합 6. 지속가능 테마 투자 7. 임팩트·지역사회투자)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업계에서 유일한 주요국 자본시장 지속가능투자 전략·규모·통계 분석 보고서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검토 보고서(GSIR)' 격년 정기 발간으로 독보적 위치와 권위 인정 ▪ 국내 ESG 투자 전문가들이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통계
한국 회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한 공식 회원



[1969 전신 /
2005 개편 통합 /
www.icmagroup.org]

- 개요: 국제자본시장 기준·원칙·가이드라인 제정기구
- 주요 타겟 및 유형: 투자기관 지원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취리히 본부, 런던·파리·홍콩 사무소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 전신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Bond Dealers (AIBD) 설립 ▪ 1992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 (ISMA) 개편 ▪ 2005 International Primary Market Association (IPMA) 과 합쳐 ICMA로 개편
설립 목적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개발을 위해 글로벌·국가 간 부채자본시장 일관성과 효과성 강화
주요 회원	62개국 600여개 개발은행(AIIB, ADB 등), 중앙은행(중앙은행 대부분 가입), 상업은행, 연기금, 거래소, 거래소 상장기업, 증권사, 증권협회, 자산 펀드 매니저, 보험회사 등
주요 활동	부채자본·채권발행 시장 관행·규제·원칙·무역규정 표준 제정 확산·교육·DB 운영 (ESG 채권 발행기준 포함)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최신 2018년 본 일본·중·힌디·베트남·러시아어 포함 25개 언어 ▪ ‘사회적채권원칙(Social Bond Principles: SBP)’ 최신 2020년 본 21개 언어 ▪ ‘지속가능성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SBG)’ ▪ ‘지속가능성 연계채권 원칙(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SLBP)’ 제정 및 전파 ▪ ESG 채권 발행 후 UN SDGs와 높은 수준 연계 권고 방침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 ESG 채권 발행 글로벌 표준으로 기업 ESG 채권 발행 시 ICMA 채권 원칙에 반드시 부합 필요 ▪ 4가지 발행 기준 제시 (1. 자금 용도 2. 투자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3. 자금 관리 4. 외부 검토와 사후 보고)
한국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지역만 70개 기관 회원이지만, 시티은행 한국지점이 유일한 한국 회원 ▪ 2021년 2월 ESG 채권원칙 국제읍서버로 UN SDGs 협회가 지정, 국내 ESG 채권 발행기업 및 ESG 활동기업 UN SDGs 이행 및 연계성 평가 의견서 작성, 글로벌 기관투자자에게 자문의견 전달 중



[2009 / www.climatebonds.net]

- 개요: 녹색채권 국제표준 및 인증 기구
- 주요 타겟 및 유형: 투자기관 지원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런던 본사, 아시아·호주/뉴질랜드·남미 등 지역사무소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 세계은행 녹색채권(2007)과 유럽투자은행 기후반영채권(2008) 도입으로 설립된 영국 비영리 기구 ▪ 펀딩: 영국 외무부, 스위스 정부, IDB, 록펠러재단, GCF, UNDP 등 ▪ 녹색채권표준 위원회: CalSTRS, California State Treasurer, Fiona Ma, IIGCC, ICMIF, Ceres Investor Network, 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설립 목적	녹색채권 발행 그린워싱 방지
주요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개 세계 금융·투자기관 및 관련 에코시스템 구성 파트너 (나스닥, 대만주식거래소, 프랑스 생태전환 부처 - 예전 환경부, MSCI, 무디스, 블랙록, HSBC, 노무라, 시티, 바클레이즈, 약사, UBS, 알리안츠 등) ▪ CBI 녹색채권표준 인증사업 실행 기술자문그룹, 검증 실행기관 파트너들 포함 자체 에코시스템 존재
주요 활동	녹색채권 발행 기관·기업 대상 CBI 녹색채권표준 확산·인증·통계와 정책 DB 관리·교육·자문·시상제도 운영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녹색채권표준(Green Bond Standard)과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된 'CBI 녹색채권표준(Climate Bonds Standards)' 현재 3.0 버전 공개 의견 수렴 중 (사전 검증, 사후 검증, 자산과 프로젝트 검토, 인증의 4단계 필요, 15개 업종 상세기준 제공) ▪ 신규/다중 채권발행 기관 대상 인증제도 운영 (검증기관 비용은 별도 검증기관과 책정, CBI 인증비용은 채권 원금 1/100%의 1/10분의 1로, 예를 들어, 미화 500 백만 달러 인증비용은 5천달러)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ESG 채권 중 80%이상을 차지하는 녹색채권표준과 인증을 위한 유일한 국제기관 ▪ 학계, 언론, ESG 평가기관, 정책기관 등에게 관련 DB 정보 제공 ▪ IFC 녹색채권기술지원프로그램(GB-TAP) 후원 녹색채권 어워드로 매년 우수 녹색채권 발행기관/기업 시상
한국 회원	자문위원회에 캐나다 국적 한국인 글로벌 기후금융 선구자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 & CBI 고문



[2017 /
www.ngfs.net]

- 개요: 중앙은행·감독기구 기후변화 금융리스크 관리 협의회
- 주요 타겟 및 유형: 중앙은행·금융기관 지원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프랑스 중앙은행 파리 본부

분류	내용
설립 주도	프랑스(중심), 멕시코,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중국, 싱가포르 8개 중앙은행
설립 목적	기후리스크가 국가와 금융기관 금융안전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대비 권고안과 가이드 전파
주요 회원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을 포함한 89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회원
주요 활동	2018년부터 중앙은행 지속가능투자 지원 확대 방식에 대한 다양한 거시경제 정책 가이드 연간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금융, 녹색금융, 금융산업 환경 리스크, 기후변화 재정 리스크, 바이오다양성과 재정건전성 등)
규범 확산	2021년 3월 '지구온난화를 막는 기후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도입 가능한 9개 정책 수단 보고서 (Adapting Central Bank Operations to a Hotter World: Reviewing Some Options)' 발간 [신용작업] 1. 은행 기후관련 신용공여 반영 대출이자율 조정 2. 담보 구성 반영 대출이자율 조정 3. 특정 기후 공시에 따라 대여시설에 대한 접근성 결정 [부수요소] 4. 기후리스크 더 고려하도록 담보 증거금을 조정 5. 기후 리스크 자산 제외 네거티브 스크리닝 6. 환경친화 활동 지원 장려를 위한 포지티브 스크리닝 7. 담보물 구성을 기후 관련 목표에 맞추어 조정 [자산매입] 8. 기후 관련 위험 고려한 선별 구매 9. 일부 자산 혹은 발행자 제외를 위한 네거티브 스크리닝
영향력	중앙은행 중립성 및 탄소집약도 높은 은행·기업 유동성 압박 상승으로 기존 통화·담보·대출 지원책 이견 존재
한국 회원	2019년 한국은행 가입, 금융위와 금감원 가입 준비 중



[1992 / www.unepfi.org]

- 개요: 지속가능금융 확산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기관
- 주요 타겟 및 유형: 금융기관 지원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스위스 제네바 본부

분류	내용
설립 주도	1992년 리우 선언 이후 도이체방크와 UBS 같은 선진 금융기관 제안으로 UNEP에서 설립
설립 목적	지속가능금융 주류화를 견인하는 활동 및 국제기준 확산
주요 회원	2021년 1월 기준 378개 금융(은행, 보험, 투자자) 기관 및 100여개 정책 지원 기관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금융기관 대상 재무/비 재무 요소 고려 투자, 리스크 관리, 정보 공시 촉진 ▪ 거래소: 2009년 PRI와 함께 Sustainable Stock Exchange 설립 ▪ 투자기관: 2018년 PRI와 함께 The Investor Agenda, 2019년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설립 ▪ 보험회사: 2021년 11월 Net Zero Insurance Alliance 설립 준비 중 (COP 26 준비 활동) ▪ 은행: 2021년 4월 Net Zero Banking Alliance 설립 (COP 26 준비 활동) ▪ 탈탄소화: 2014년 다른 연기금/투자기관들과 함께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설립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관: 2006년 UNGC와 함께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6대 원칙 및 기관 설립 ▪ 보험회사: 2012년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 4대 원칙 제정 및 전파 (전 세계 1/4 보험회사 참여) ▪ 은행: 2019년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PRB)' 제정 및 전파 (전 세계 1/3 은행 참여)
영향력	전 세계 지속가능금융 선도기관으로서 금융산업 지속가능경영 확산 큰 기여
한국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한국 회원 그룹 설립 후 2021년 4월 현재 11개 서명기관 ▪ 회원: 기업은행, 한국자산신탁, 신한금융지주회사,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DGB 금융그룹, DB 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생명보험 ▪ 파트너 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MOU 협약기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06 / www.unpri.org]

- 개요: 기관투자자 지속가능투자 확산 연합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투자기관 지원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영국 런던 본부

분류	내용
설립 주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UNEP FI와 유엔 글로벌콤팩트가 공동 설립
설립 목적	지속가능투자 확산 및 주류화 지원
주요 회원	2021년 4월 기준 3,934개 서명기관 (자산오너 610개, 자산운용사 2,894개 의결권 자문 등 서비스 제공자 429개)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투자기관 대상으로 재무/비 재무 요소 고려 투자, 리스크 관리, 정보 공시 촉진, 우수기관 시상 ▪ 거래소: 2009년 UNEP FI 와 함께 Sustainable Stock Exchange 설립 ▪ 투자기관: 2018년 UNEP FI 와 함께 The Investor Agenda, 2019년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설립 ▪ 자산운용사: 2020년 다른 투자기관들과 함께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설립 ▪ 투자기업: 2017년 다른 투자기관들과 함께 Climate Action +100 설립 ▪ 탈탄소화: 2014년 Montreal Carbon Pledge 설립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관 대상으로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6대 원칙 전파 및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서 ESG 이슈 통합 2. ESG 이슈를 소유권 정책과 관행에 통합시켜 소유권리 강화 3.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 정보 공개 요구 4. 투자산업 책임투자 원칙 수용과 이행 촉진 (새 기준은 서명기관 모든 관리 자산 최소 50% 이상 책임투자정책 시행 필요) 5. 책임투자 원칙과 효과성 제고 노력 6. 원칙 이행 활동과 진행상황 보고 ▪ 매년 회원기관 책임투자 이행수준 보고 내용 평가 후 불성실 기관에게 재평가 기회 제공 후 지속 시 배제
영향력	전 세계 50% 이상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가장 큰 기관투자자 이니셔티브
한국 회원	2021년 4월 현재 11개 회원 (국민연금,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지속가능발전소, 안다자산운용, ESG모네타, 하이자산운용, VI 자산운용, 프랙시스 캐피탈 파트너스, 뮤렉스 파트너, 소시어스, Well to Sea 투자)



[2009 / <https://sseinitiative.org>]

- 개요: 거래소 ESG 촉진 연합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거래소 압력형 / 기업 직접 압력형
- 위치: 유엔 무역개발협의회 (UNCTAD) 산하 스위스 제네바 본부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유엔 글로벌콤팩트가 뉴욕에서 주요 10개국 거래소 회의 후 공동성명서 발표 ▪ 2008년 유엔 무역개발협의회 (UNCTAD)가 제네바에서 자본시장 주요 기관 관계자 회의 주최 ▪ 유엔 글로벌콤팩트, UNCTAD, PRI가 공동 설립 후 UNEP FI가 파트너 합류
설립 목적	각 국 거래소 ESG 정책 확산을 통해 UN SDGs 달성 자원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투자 확대
주요 회원	107개국 거래소 및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등 16개국 금융위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 ESG 정책 비교 검색 가능 DB 운영: ESG 정책 여부, 자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여부, 상장 여건 ESG 보고·공시 의무, ESG 교육 제공 여부, ESG 지수 유무, ESG 채권 상장·심사 여부, SME기업 상장 방식 ▪ 주요국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에서 ESG 반영 사례 제공: 공시 강화, 의무 명시, 거버넌스 강화, 역량강화, 투자촉진, 분석, 로드맵, 공유, 기준, 협력 분야 필터 통해 사례 확인 가능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기업용 'ESG 가이드선' 제공 여부: GRI(95%), SASB(77%), IIRC(75%), CDP(67%), TCFD(54%), CDSB (26%) 기반으로 현재 53%(56개 거래소 + 한국거래소) 명문화된 ESG 가이드선 제공 중 ▪ 상장기업 대상 ESG 공시 강제화 규제 여부: 23%(25개 거래소) 실행 중 ▪ ESG 채권 거래 여부: 현재 35%(38개 거래소) 거래 중
영향력	세계 53,403개 상장기업 및 시가총액 88,344,537 백만 달러 커버 중
한국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최경수 이사장 임기에 한국거래소(KRX) 20번째 회원 가입 ▪ 2021년 1월 한국거래소 ESG 가이드선 발표



[2014 / <https://montrealpledge.org>]

- 개요: 투자기관 탄소발자국 측정 공개 독려용 이니셔티브
- 주요 타겟 및 유형: 투자기관 지원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영국 런던 PRI 본부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COP21 파리기후변화협약 회의 전 몬트리올 PRI 총회에서 설립 ▪ 1987년 제정된 오존파괴감소 규범 '몬트리올 의정서'와는 다름
설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포트폴리오 탄소발자국 측정 및 공개로 화석연료 및 화력발전 투자 감소 ▪ 2015년 COP21 파리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PRI 와 회원 투자기관 연합행동 통해 강력 지지 표명
주요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자산 규모 10조 달러 120 개 투자기관 (CalPERS 같은 연기금 포함) ▪ PRI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입 가능 ▪ PRI 회원 및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PDC) 회원 대상에게 참여 독려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서약 및 실행 활동에 대한 공시 장려 ▪ 표준화된 탄소발자국 측정법 제시는 하지 않고 PRI 회원 투자기관 각자 선택에 따라 측정 후 공시 독려 ▪ 몬트리올 탄소 서약서에 서약한 투자기관 대상 탄소발자국 측정 서비스 할인 제공 기관 리스트 소개 (Bloomberg, Carbon Clear, Carbone 4, Corporate Knights, Ecofys, Vigeo Eiris, ET Index, Inrate, MSCI ESG Research, South Pole Carbon, Sustainalytics, Trucost, YourSRI.com)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포트폴리오 탄소발자국(Scope 1/2/3) 측정 5단계' 제시: 1단계 공개 서약 2단계 측정 규모/지역 결정 3단계 내부 측정팀 혹은 외부 측정 파트너 선정 4단계: 데이터 측정 및 검토와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5단계: 매년 홈페이지 상 활동 감소
영향력	2015년 COP21 파리기후변화협약 회의 전 설립된 원 포인트 이니셔티브로, 이후 홈페이지 상 활동 감소
한국 회원	해당 없음



[2014 / <https://unepfi.org/pdc>]

- 개요: 금융기관 탈석탄 투자 이행과 공시 지원 민관협력체계
- 주요 타겟 및 유형: 금융기관 지원형 / 기업 직접 압력형
- 위치: 스위스 제네바 UNEP FI 본부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NEP FI, CDP, 스웨덴 연기금 AP4, 프랑스 자산운용사 Amundi
설립 목적	탈탄소사회 전환 위해 금융기관 탈석탄 금융 및 투자 이행 지원
주요 회원	총 자산규모 8천억 달러 32개 자산소유 및 운용기관(선진국 연기금, 보험, 자산운용사 등)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P FI와 CDP 주도로 핵심 투자포트폴리오 자산 탄소 발자국 측정, 탈탄소화 계획, 공시 (포트폴리오 조정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실행 가능 수치로 제시해야 함) ▪ 탄소발자국 공개를 넘어 더 높은 압력 단계인 투자자산 탈 탄소화 지향 ▪ 탄소집약기업에서 자본 회수, 같은 부문 탄소 효율 높은 기업 재투자 촉진 ▪ 모든 투자자 회원 공시를 모아 매년 연간 보고서 발간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서약 및 실행 활동 공시 장려 ▪ 몬트리올 탄소 서약서 서약 후, 서약기관 대상 탄소발자국 측정 서비스 할인 기관들과 탄소 발자국 측정 후 결과 공시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연기금 ABP는 주식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16% 감소 ▪ 프랑스 연기금 FRR은 기준치 대비 30% 낮은 포트폴리오 탄소집약도 달성 보고 ▪ 2015/16/17년 연간보고서 발간 이후, 홈페이지 상 활동 감소
한국 회원	해당 없음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 — 탄소회계금융협의체



[2015 / <https://carbonaccountingfinancials.com>]

- 개요: 글로벌 금융기관 탄소회계 협의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금융기관 압력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미국 본사, 유럽·아시아·중동 지역 지사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WRI와 WBCSD가 설립 제정한 GHG 프로토콜 추종, 2011년 WRI와 WBCSD가 공동 제정 공개한 기업 밸류체인(Scope 3) 회계기준 영향으로 설립 ▪ 설립기관: 네덜란드와 미국 중심으로 ABN AMRO, Amalgamated Bank, ASN Bank,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GABV), Triodos Bank ▪ 운영위원회: 상기 설립기관들 외, 모건스탠리, NBM Bank,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 참여 ▪ 펀딩: 윌리엄/플로라 휴렛 재단과 IKEA 재단 ▪ 파트너: TCFD, CDP, GCF,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등 ▪ 사무국: 글로벌 금융산업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회사 가이드하우스(GuideHouse)
설립 목적	파리기후변화협약 달성을 위해 금융산업 글로벌 GHG 회계/보고 기준 제정 및 전파
주요 회원	총 자산규모 27조 달러 이상 약 116개 금융기관 (MDB, 상업은행, 자산소유기관·운용사, 보험 등)
주요 활동	금융기관 연간보고서의 기업 대출/투자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공시용 금융기관 회계방법론 개발 및 전파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 글로벌 GHG 회계/보고 기준’ 제정 및 전파(2020년 11월 최신본): 6대 금융부문 대상 권고 (1. 상장주식과 기업채권 2. 기업대출과 비상장주식투자 3. 프로젝트 파이낸싱, 4. 상업적 부동산 투자 5. 모기지 6. 교통수송차량 대출)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각 국 정부, 금융규제감독기관, NGO 등과 협력 예정 ▪ 현재 116개에서 2022년까지 250개 금융기관 대상 PCAF 회계방식기준 활용 확산 노력 중
한국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파트너 및 회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기업은행 (2021년 5월) ▪ 글로벌 사무국 역할 수행 컨설팅 회사 가이드하우스 서울 사무소 존재 (서울 강남구 파트나스 타워)



- 개요: 글로벌 투자자 온실가스 기업 배출 저감 촉구 연합행동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투자기관 지원형 / 기업 직접 압력형 (피동적 가입)
- 위치: 네트워크 형태로 설립 5대 기관에서 공동 관리 운영

[2017 / www.climateaction100.org]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PRI,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 Ceres, IIGCC (The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IGCC(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5대 기관 ▪ 주도: 세계 7위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CalPERS
설립 목적	파리기후변화협약 지구기온 상승 1.5도 유지 달성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높은 기업 대상 직접 개입 감소 촉구
주요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570개 투자기관(CalPERS와 블랙록 등)과 투자자들에 의해 피동적으로 선택된 167개 기업 ▪ 기술자문그룹: Carbon Tracker Initiative (CTI), Influence Map(IM), Transition Pathway Initiative (TPI), 2 Degree Investing Initiative (2DII)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들이 개입을 원하는 GHS 고 배출 투자기업 리스팅 후, 개별/단체행동 통해 직접 개입 감소 촉구 ▪ 아시아, 북미, 호주/뉴질랜드, 유럽, 기타 지역 워킹그룹으로 기업 분류, 투자자가 특별 관리/개입 ▪ 그룹별 1년 2회 보고 결과 모아 167개 기업 벤치마킹 비교 결과 '경과 보고서' 형태 발간 (2021년 3월)
규범 확산	'Net-Zero Company Benchmark' 기반 대상기업 비교평가 및 공시 통해 온실가스 감소 경쟁 유도 (10대 지표: 1. 2050 넷제로 목표 2. 2036-2050 감축목표 3. 2026-2035 감축목표 4. 2020-2025 감축목표 5. 탈탄소화 전략 6. 자본조정 7. 기후정책 촉진 노력 8.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9. 공정한 전환 10. TCFD 공개)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자산규모 54조 달러 32개국 570개 투자기관 가입하여 기업 GHS 배출량 및 배출 저감 활동 평가 ▪ 세계 160개 사업국 8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167개 기업 피동적 가입 (평가로 GHS 감소 경쟁 유도) ▪ 런칭 이후 130% 투자기관 가입 성장률
한국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는 AIGCC가 PRI 아시아와 함께 33개 아시아 회원 기업 관리 (모든 주요 자료 한글본 존재) ▪ 2020년 평가 보고서에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한전(안 좋은 사례로 소개) 평가됨



[2018 /
<https://theinvestoragenda.org>]

- 개요: 글로벌 투자기관 녹색투자 촉진 연합행동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투자기관·정부 압력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본부 미국 샌프란시스코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UNEP FI, PRI,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 Ceres, CDP, IIGCC (The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IGCC(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7대 기관 ▪ 펀딩: 미국 Climateworks Foundation (빌게이츠 VC, 제프 베조스, 블룸버그, 포드, 이케아 재단 연합 설립)
설립 목적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목표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혼재 상황 정리를 위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결성
주요 회원	7대 설립기관 및 12개 파트너 (ACSI, China SIF, Divest Invest, GSIA, JSIF, USSIF, ICCR 등)
주요 활동	7대 설립기관 소속회원 투자기관 대상으로 4대 투자자 어젠더 전파 및 서명을 모아 세계·각국 정부 대상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정책 수립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규범 확산	‘투자자 어젠더’ 전파: 1.기업 개입 - 1.5도 미래 위한 기업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성과 공시 확대 2. 투자 - 포트폴리오에 구조적 환경 리스크 반영과 넷제로 달성 가능기업 투자자산 전환 3. 정책 촉구 - 2050년 이전 넷제로 경제 달성 위한 올바른 정책 전환 촉구 4. 투자자 정보공시 - 이해관계자들이 1.5도 미래 투자 여부 알 수 있도록 투자기관 정보공시 촉진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설립기관 소속회원 투자기관 숫자는 총 631개로 총 자산규모 37조 달러 ▪ 설립 후 1년간 총 1,200개 투자기관 최소 1개 어젠더 실행, 750개 이상 투자기업 기후변화 정책 직접 관여, 400개 이상 자사 기후변화 투자 성과 공시, 260개 이상 기후변화 반영 투자 목표 설정 ▪ 2019년 631개 투자사 Global Investor Statement to Governments on Climate Change 서명 받아 COP 25 제시 ▪ 2021년 4월 미국 국제환경리더십 회복 촉구 바이든 대통령 공개서한 (미국 정책 워킹그룹 CDP, Ceres, PRI)
한국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지원 파트너로 활동 중 ▪ 2020년 5월 COP26 이전 탄소중립 선포 촉구 문재인 대통령 공개서한 (APG, KOSIF, AIGCC, PRI, 영국교회위)



[2019 / www.unepfi.org/net-zero-alliance]

- 개요: 유엔 주도 글로벌 자산오너 넷제로 달성 추진 연합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자산오너기관 압력형 / 기업 직접 압력형
- 위치: 스위스 제네바 UNEP FI 본부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주도: UNEP FI, PRI 주도로 Allianz, Caisse des Dépôts, La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DPQ), Folksam Group, PensionDanmark, SwissRe 설립 ▪ 관리: WWF, Global Optimism (유엔기후변화협약 전 사무총장 Christiana Figueres 이니셔티브)
설립 목적	2050년 이전까지 넷제로 목표와 산업화 이전 지구기온 상승 1.5도 유지 달성 위한 지속가능투자 확대
주요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 기관투자자(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CalPERS, UN 임직원 연금펀드, 독일 알리안츠, 프랑스 AXA 등) ▪ 연기금, 보험, 은행 등 자산오너기관들로 한정
주요 활동	기후변화 반영 2025년 '투자 중간목표 수립 가이드선스' 제공 후 기관투자자 중간목표 수립 공시 독려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0월 '최초의 2025 목표 수립 프로토콜(Inaugural 2025 Target Setting Protocol)' 보고서 발간, 파리기후변화협약 4.9항 달성 가능한 4대 분야 '넷제로 투자 중간목표 수립방식 가이드선스' 제시 (1. 최대 20개까지 기업 연계 목표 2. 산업별 우선순위 목표 설정과 KPI 제시 3. 투자 포트폴리오 상세 배출량 목표 설정 4. 친환경 투자 전환 목표) ▪ 예: 알리안츠 2021년 1월 최초 기후변화 반영 투자 2025년 중간목표 수립 홈페이지 공시 - 자산투자·기업채권 금융 포트폴리오 GHG 25% 감소. 부동산 투자 1.5도 반영, 기후보호 및 사회발전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 기관투자자 총 자산규모 5.6조 달러 (지역·나라·업종 검색 DB 홈페이지 만들고 회원 수 신속 증가 노력 중) ▪ Climate Action 100+, The Investor Agenda, SBTi, The Investor Energy & Climate Action Toolkit과 협력 증대 ▪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 주최 COP 26 준비 중 ▪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 (GFANZ)의 자산오너기관 부문 설립 멤버
한국 회원	공적 연기금 사회적 책임 고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에도 가입 압력이 가해질 전망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2020 /
www.netzeroassetmanagers.org]

- 개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넷제로 달성 추진 연합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자산운용사 압력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영국 PRI와 CDP 본부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 CDP,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 Ceres, IIGCC (The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IGCC(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6대 기관 ▪ 총 자산규모 9조 달러 30개 자산운용사 (AXA, BMO, 켈버트, DWS, 피델리티, 로베코, UBS 등)
설립 목적	파리기후변화협약 5주년 기념 2050년 넷제로와 산업화 이전 지구기온 상승 1.5도 유지 달성 목표
주요 회원	73개 자산운용사 (블랙록, 뱅가드, APG 연기금, 맥커리, UBS, LGIM 등)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넷제로 자산운용사 약속(Net Zero Asset Managers Commitment)' 서명 회원 증가로 ESG 자산운용 투자 확대 ▪ The Investor Agenda, Climate Action 100+, Climate League 2030, Paris Aligned Investment Initiative, 금융기관을 위한 SBTi,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등과 협력을 약속해야 함
규범 확산	<p>'넷제로 자산운용사 약속(Net Zero Asset Managers Commitment)' 이행 서명과 가입 요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50년까지 모든 운용자산에서 탄소중립 넷제로 달성목표 위해 운용자산 소유고객과 적극 협력 2. 탄소중립 목표 운용자산 비율 중간 목표설정 3. 탄소중립 목표 운용자산 비율 총자산 100%가 될 때까지 최소 5년마다 중간 목표검토 추진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개 자산운용사 총 자산규모 32조 달러 ▪ 모든 투자처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맞춰야 하므로 환경 저성과/미공시 기업 압력 증대(투자 회수는 아님) ▪ 2020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Climate Action Alliance 주도 글로벌 캠페인 'RACE TO ZERO' 참여 확산 ▪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 주최 COP 26 준비 중 ▪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 (GFANZ)의 자산운용사 부문 설립 멤버
한국 회원	2020년 8월 한전 주주 영국 LGIM(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한전 석탁화력 발전 제동 중

**INDUSTRY-LED, U.N.-CONVENED
NET-ZERO BANKING ALLIANCE**

- 개요: 유엔 주도 글로벌 은행 넷제로 달성 추진 연합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은행기관 압력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스위스 제네바 UNEP FI 본부

[2021년 4월 / www.unepfi.org/net-zero-banking]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NEP FI, Prince of Wales' Sustainable Markets Initiative Financial Services Taskforce, 영국 정부 보리스 존슨 총리
설립 목적	2050년 이전까지 넷제로 목표와 산업화 이전 지구기온 상승 1.5도 유지 달성 위해 지속가능금융 확대
주요 회원	23개국 43개 은행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P FI가 2019년 제정 전파하는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PRB) 추종 ▪ CEO 서명 서약서 포함 내용: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에 2050년 이전까지 넷제로 목표 이행 반영, 가입 18개월 이내 2030 중간 목표 및 2050 목표와 매 5년 간 실행목표 수립, 2030까지 주력 실행 업종 목표 및 36개월 내 다른 실행 업종 목표 수립, 매년 온실가스배출량 및 전환 계획 공시 등
규범 확산	<p>은행기관들의 기후변화 연합행동 'UNEP FI Guidelines for Climate Target Setting for Banks' 제정 및 전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온도 유지 즉시이행 및 장기 실행 목표 공개 2.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배출량 기본수준 수립 및 연간 측정 후 보고 3.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온도 유지 즉시이행 및 장기 실행 목표 수립에 과학기반 탈탄소화 시나리오 적용 4. 현재 기후과학 수준과 연관성 목표 유지 위해 정기 검토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개 은행 총 자산규모 28.5조 달러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Climate Action Alliance 주도 글로벌 캠페인 'RACE TO ZERO' 참여 확산 ▪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 주최 COP 26 준비 중 ▪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 (GFANZ)의 은행 부문 설립 멤버
한국 회원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참여

Net Zero Insurance Alliance

[2021년 11월 예정 / 홈페이지 구성 중]

- 개요: 유엔 주도 글로벌 보험 넷제로 달성 추진 연합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보험기관 압력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스위스 제네바 UNEP FI 본부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P FI ▪ AXA (회장 기관), Allianz, Aviva, Munich Re, SCOR, Swiss Re, Zurich ▪ 2021년 11월 COP26에서 런칭 예정
설립 목적	2050년 이전까지 넷제로 목표와 산업화 이전 지구기온 상승 1.5도 유지 달성 위해 지속가능보험 확대
주요 회원	AXA (회장 기관), Allianz, Aviva, Munich Re, SCOR, Swiss Re, Zurich외 UNEP FI 주요 보험사
주요 활동	UNEP FI가 2012년 제정 전파하는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 4대 원칙 추종
규범 확산	<p>UNEP FI가 2012년 제정 전파하는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 4대 원칙 확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사업 운영에 ESG 이슈 반영 2. 보험사업 고객기업들에게 ESG 이슈 리스크 반영 해결책 개발 촉진 3. 정부 및 감독기관들과 협력 ESG 이슈 전 사회 확산 4. 원칙 준수 실행 성과 정기 공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Climate Action Alliance 주도 글로벌 캠페인 'RACE TO ZERO' 참여 확산 ▪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 주최 COP 26 준비 중 ▪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 (GFANZ)의 보험 부문 설립 멤버
한국 회원	삼성화재, 신한생명보험, DB 손해보험은 UNEP FI 회원사로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에 서명, (삼성생명은 PSI에 미서명) 넷제로 보험 연합에도 참여 가능성 높음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the Net Zero (GFANZ) –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



[2021년 4월 /
홈피 구성 중]

- 개요: COP26 준비 및 이행을 위한 글로벌 금융연합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금융기관 압력형 / 기업 간접 압력형
- 위치: 영국 COP 26 주최국 준비 본부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 재닛 옐런 재무장관, 마이클 블룸버그 적극 지원 ▪ 2008-2013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2013-2020년 영국 중앙은행 총재, G20 금융안전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유엔 기후행동과 금융 특사 마크 카니 회장 ▪ 2021년 4월 22일 바이든 기후변화 정상회의 전야행사로 런칭
설립 목적	2050년 이전 넷제로 목표와 산업화 이전 지구기온 상승 1.5도 유지 달성 위한 전환 경제와 금융 추구
주요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대륙 162개 금융기관 (자산오너, 운용사, 은행, 보험 등) ▪ 2021년 4월 유엔주도 설립 넷제로 은행 연합 (UNEP FI 주도) – 42개 기관 28.5조 달러 ▪ 2019년 유엔주도 설립 넷제로 자산오너 연합 (UNEP FI와 PRI 주도) – 58개 기관 7.4조 달러 ▪ 2020년 설립 넷제로 자산운용사 운동 (PRI 주도) – 87개 기관 자산규모 36.95조 달러 ▪ 2021년 11월 유엔주도 설립 예정 넷제로 보험 연합 (UNEP FI 주도)
주요 활동	'RACE TO ZERO' 캠페인 확산, 넷제로 달성 활동 강화 촉진, 신용평가기관·거래소·탄소배출시장과 연계 강화,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P FI, PRI, 넷제로 4개 연합행동그룹 주도 국제기준 및 원칙 확산 예상 ▪ 모든 서명기관은 'RACE TO ZERO' 기준에 따른 과학기반 단기·장기 계획 이행 의무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개 금융기관 총 자산규모 70조 달러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Climate Action Alliance 주도 글로벌 캠페인 'RACE TO ZERO' 적극 지원 ▪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 주최 COP 26 준비 중
한국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P FI, PRI, 넷제로 4개 연합행동 그룹의 한국 회원기관 참여 예상



[2020년 / <https://racetozero.unfccc.int>]

- 개요: 유엔 주도 탄소중립 경제 전환 글로벌 캠페인 연합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금융기관 압력형 / 기업 간접 & 직접 압력형
- 위치: 독일 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본부 사무국

분류	내용
설립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COP25 앞두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Climate Action Alliance 주도 설립: 나이젤 토픽 (전 CDP 사무총장 및 영국 정부 위촉 COP26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 및 곤잘로 무노즈 (칠레 환경운동가 및 COP25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 핵심 역할 ▪ COP26 회장 알록 샤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COP25회장 캐롤리나 슈미트 핵심 활동
설립 목적	2050년 이전까지 파리기후변화협약 1.5도 목표와 현 기후행동 노력 간 격차 해소 캠페인
주요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121개국), 지역 (23개), 도시(509개), 기업 (2,163개), 투자기관 (126개), 대학·산업·국가별 협회(571개) ▪ Global Climate Action 사이트에서 회원 상세 DB 정보 확인 가능
주요 활동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절반 감소 및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활동
규범 확산	<p>'RACE TO ZERO' 기준 확산 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명 (참여기관 최고책임자의 넷제로 이행) 2. 계획 (참여 12개월 내 2030년까지 50% 감소 중간목표 수립) 3. 실행 (참여 12개월 내 넷제로 달성 위한 즉각적 실질적 행동) 4. 공시 (수립 목표 정기 보고 및 공시)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 25 당시 참여 기관들 세계 경제 비중 15%, 6억 2천만 인구, 이산화탄소 배출량 7% 규모 참여 ▪ COP 26 까지 참여 기관들 세계 경제 비중 30%, 전 세계 인구 30%,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규모 참여 목표 ▪ 2020년 COP25 앞두고 설립 후 영향력 확대, 2021년 COP26 앞두고 GFANZ에서 지원 천명, 영향력 지속 전망
한국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개 기업·기관·지자체 227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중(71% 기업, 14% 투자자, 8% 지자체, 5% 대학 및 기관) ▪ SK 홀딩스 탄소감소 정책 3개 및 탄소가격 수립, SK 하이닉스 탄소감소 정책 3개 및 탄소가격 수립, SK 텔레콤 탄소감소 정책 2개 및 탄소가격 수립

RE 100

- 개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 글로벌 기업 연합체
- 주요 타겟 및 유형: 금융기관 지원형 / 기업 직접 압력형 (능동적 가입)
- 위치: 영국 런던 Climate Group 본부

[2014년 / <https://www.there100.org>]

분류	내용
설립 주도	CDP와 협력하여 국제 비영리 기구 Climate Group이 설립 주도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 EV100, 스마트한 에너지 절감 기업 확산 EP100 등 연관 글로벌 이니셔티브들도 설립 주도)
설립 목적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해 기업 사용 전력량 100% 재생에너지 활용 달성
주요 회원	309개 글로벌 기업 회원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기준 해당 기업 RE100 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수급 활동 연간 보고 공시 ▪ 연간 회원비 신규 5천달러, 기존 3천5백 달러
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100 글로벌 정책' 운동 확산 중 (1.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이 석탄화력 에너지 사용기업 대비, 정책/비용적 손해 안 보도록 정책 변화 2. 규제 장벽 및 재생에너지 수급 장애 요인 감소 3. 기업 고객과 재생에너지 공급업체 간 직거래가 가능한 에너지 시장 형성 4. 전기 생산시설과 유통시장에 재생에너지 수급채널 다변화 5.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직접 투자 확대 6. 환경요소인증서(Environmental Attribute Certificates: EACs) 제도 수립, 검증, 인증 시스템 지원 확대)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175개국 구글, 애플, GM 이케아, 유니레버 등 유명 기업 참여로 공동구매력 & 로비력 증가 중 ▪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단체 연합행동을 주도하고 늘려 정부 정책 입안자 대상으로 인센티브 정책 로비 (Under2 Coalition 이라는 전 세계 지자체 정부들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지원 기관도 설립 주도하므로 시너지)
한국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그룹 8개사(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및 수자원공사 참여 ▪ 한국파트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EV100도 한국 파트너 ▪ 한국 정부 한국형 RE 100인 K-RE100 도입 준비 중